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 의 락
편집인 : 문화이사 심 재 서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쇄 : 도야인쇄
(02)2268-9903

신년사

갑오년(甲午年) 새해! 희망찬 태양이 솟았습니다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금년은 음양오행(陰陽五行)에 의하면 6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청마는 상서로움과 희망, 정열과 믿음, 박력과 생동감, 뛰어난 순발력, 탄력이 넘치는 에너지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5만 전국의 종인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일가여러분! 갑오년 새해엔 일가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청마의 기운이 넘쳐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계사년(癸巳年)에는 청송심씨의 중심축인 대종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습니다.

첫째, 위선(爲先) 사업과 송조돈목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5처 묘소 및 2단소 관리와 춘추시제봉 향 그리고 뿌리교육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국에 있는 일가들의 단합과 돈목을 위하여 징검다리를 놓는 가교(架橋)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 종회든 어느 파(派) 종회든 한 핏줄로 이어오는 같은 자손입니다. 천 갈래든 만 갈래든 우리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일가권속(一家眷屬)을 이루고 남다른 정과 사랑을 나누는 가문

(家門)으로 형제라는 금지를 간직해야 합니다.

둘째, 심문의 영재를 기르기 위하여 장학사업의 튼튼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장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억 원의 기금 조성에 발 벗고 나선 파종회나 지역종회 또는 뜻있는 종인들의 격려와 출연(出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부산지역종회장이시며 대종회부회장이신 상균일가께서 사재(私財) 3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장학회는 지난해 80명의 영재들에게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데 이어 금년에도 80명의 영재를 선발하여 3월에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꾸고 있는 싹이 아직은 연약할지라도 마침내 동량지재(棟梁之材)가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숭고한 장학사업은 25만 종인들의 한결 같은 숙원사업으로서 지난 날 삼한 갑족으로서의 영광을 찾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조상님께서 물려준 종재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청송의 시조 문림랑공 할아버지, 함열의 2세조 함문지후공 할아버지, 안성의 3세조 청화부원군 할아버지, 4세조 연천의 정안공 할아버지, 청주의 4세조 비(妣) 貞敬夫人 청주송씨 할머니의 위토와 종재를 실사(實査)했습니다.

지번(地番)별로 현지를 답사하고 어떻게 관리 활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종재 실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기록하고 종재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종재관리대장에 비치하여 현장에 가지 않아도 누구든지 한눈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묘하의 일부 종인들의 무단 점유 등 종재 관리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였으며 해당(該當) 지역사회의 시세(時勢)에 맞게 임대료를 재조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고 종재의 손실과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청송심씨 종보를 애독하는 종인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년 6회 종보 발간에 필요한 약 3천2백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종보찬조 지료를 동봉한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지로 등으로 3천6백여만 원의 종보찬조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고(自古)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습니다. 요즈음 회자(膾炙)되는 '웃음소리가 나는 집에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함소리가 나는 집에는 불행이 와서 들여다 본다.' 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창밖까지 번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甲午年 元旦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심 의 락

謹賀新年

일가여러분 甲午年 새해에도 家內에 萬福이 가득하시고 萬事亨通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顧問 : 魚澤 相泳 晶求 載鴻 載榮

指導委員 : 宜斗 相明 相弼 宇永 大平 勳鍾 漢垓 龍俊 允宗

名譽會長 : 斗燮

會長 : 宜洛

副會長 : 宜七 相殷 相郁 甲輔 相和 贊求 完求 相錄 相均

監事 : 載冕 春植 相烈

執行部 : 總務理事 秀永 財務·文化理事 載緒

宗有司 : 靑松 : 遠燮 相喆 咸悅 : 正秀 安城 : 哲裕 漣川 : 洪燮 淸州 : 載龍 鐵原 : 相國 德川 : 相學

理事 :

(서울) 宜杓 勇鎮 重澤 應錫 相默 相學 相翰 相慶 相祚 暎求 泰燮 佑燮 亨求 奉燮

載求 百燮 星求 光燮 光燮(대치동) 正燮 洪燮 朱燮 雄燮 旻燮 寅燮 容圭

三圭 載洪 載金 殷植 元植 載德 載奉 載澈 愚夏 愚龍 春輔 光輔 英輔 昌輔

勳輔 種福 賢輔 俊輔 成輔 相晚 相瑞 忠澤 在臣 玉仁

(釜山) 宜景 成燮 載德 載榮 萬仁

(大邱) 湖澤 成澤 烜燮 護雄 賢錫 貞燮 勳

(大田) 宜哲 逸燮 玄根 揆燮 揆善

(仁川) 在安 相直 相圭 相振 駿求 慶燮 大植 載錫 應茂 載善 炯茂 江水 揆成 彝燮 錫文

(光州) 在均 在昊 在益 鍾德 相祐 觀燮 憲燮 駿燮 鎮植 愚慶 東原 揆大

(蔚山) 隆求 英求 應輔 守輔

(江原) 萬澤 相汶 相祐 相夏 相國 相昭 東燮 敏燮 仁燮 春燮 載求 載鉉 茂植 東出 正輔 愚弘 成起 相珉 在澤

(京畿) 永澤 龍澤 炳澤 相龍 相億 相勳 相英 相弘 相贊 相烈 相華 相厚 相濟 相雨 相大 鍾赫 興周 鍾洪 彥村 康燮 洋燮 良燮 良燮(김포) 求亨 應夏 政燮 一用 洵燮 明燮 虎燮 胤燮 德燮 榮燮 炯燮 載烈 載萬(김포) 載滿 載勳 載根 禹植

載玉 允輔 錫鎔 光輔 元輔 元輔(김포) 完輔 聖輔 昌輔 上銀 宗玉 泳淳 泳秀 文錫 義用 載文 國鎮 瑞玲 錫希 完圭

(忠北) 相昊 相鶴 中來 成來 興燮 載武 載德 載榮 明彥 揆完 仁輔

(忠南) 甲澤 允澤 仲根 仲燮 載令 載重 泓植 永鍾 揆蒸

(全北) 相哲 相根 鍾默 鍾根 斗燮 仁求 載政 載學 哲植 安輔 秀一 尚道 載根 揆一

(全南) 行燮 貞燮 正植 旗官 棋柏 太守

(慶北) 宜石 能光 琬澤 善澤 相國 相燾 相學 相東 相完 宗燮 載德 載玉 載浩 載洪 在叔 載根 南圭 花鮮 秀彥

(慶南) 東燮 吉燮 載判 載華 點輔 揆賓

(日本) 廣燮

(캐나다) 相昱

位土 實查 報告

대중회 임시정기총회결의(2013년6월20일)에 따라 전국 위토실사 (5처묘소)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지난 해 10월, 안성 소재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실사 후 실사결과를 11월 종보에 게시하였으며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조치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청송 시조 문림랑공, 함열 2세조 합문지후공, 연천 4세조 정안공, 청주 4세조 비 청주 송씨, 위토와 서울 종재를 포함하여 대중회 소유의 모든 재산을 실사했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고 筆地(地番)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토대장을 작성하고, 위토의 위치 및 면적과 경작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수있는 자료를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1. 위토 현황 및 실사기간

소재	필지	㎡	평	공시금액(원)	소유자	실사
서울	2	441	133	2,906,190,000	대중회	
청송	43	1,395,581	422,161	782,568,206	"	2013. 12
함열	80	234,974	71,079	1,748,564,540	"	2013. 12
안성	54	475,396	143,807	18,918,933,250	"	2013. 10
연천	35	508,773	153,903	3,096,748,710	"	2013. 11
청주	16	223,499	67,608	1,968,610,190	"	2013. 12
계	230	2,838,664	858,692	29,421,614,896	명의신탁 포함 명의자가 상이해도 모두 대중회 소유임	

2. 실사방법

- (1) 각 지역별 위토목록, 면적 및 2013년도 공시지가 기준 공시금액, 이동지 현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 (2) 각 토지별 대중회 명의 토지, 명의신탁 토지, 미등기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였고, 각 명의자 별 집계표를 만들어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영구보존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3) 각 지번별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공시지가 열람서와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 (4) 일부 명의신탁 위토를 지번별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장을 작성 비치하였습니다.

3. 각 지역별 명의신탁 내역

소재	필지	㎡	평	공시금액(원)	명 의	명의신탁 명의
청송	2	2,437	737	20,631,440	명의 신탁	심길택, 심상수
함열	44	25,703	7,775	277,985,680	명의 신탁	5인명의 외 3인
	4	2,349	711	19,539,600	미등기	
안성	19	411,002	124,328	12,029,729,750	명의 신탁	청화부원군파종중
연천	4	2,697	816	295,927,600	미등기	
계	73	444,188	134,367	12,643,814,070	위토 집계표에 포함되었음	

(1) 연천과 청주의 위토는 명의신탁 된 위토가 없으나 청송, 함열, 안성 소재지에 있는 명의신탁 된 위토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수립이 화급을 요합니다.

(2) 함열 소재 위토는 무려 44필지(2,437평)에 이르며 각 3-5명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3) 미등기 토지는 등기복구가 되어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숙제임을 각인 시킬 자료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위토 실사 전·후 임대료 증가 내역 현황

소재	필지 수	실사 전 금액(원)	실사 후 금액(원)	증가(원)	備考
함열	3	5,747,000	6,547,000	800,000	증액1건, 신규2건
안성	2	0	8,330,000	8,330,000	신규
연천	18	5,361,000	11,600,000	6,239,000	증가
합계	23	11,108,000	26,477,000	15,369,000	증가

- (1)청송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 (2)함열은 증액 및 신규 2인과 임대차계약으로 증액되었으며 현재 무임으로 경작하고 있는 영농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증액 여지 있음.
- (3)안성은 신규 계약자 등으로만 증액되었으며, 향후 위토 임대차 재정비 2천여만원 이상의 임대료 증액이 가능함.
- (4)연천은 임차료 조정에 대하여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못마땅해 하였으나, 그 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에 공감해 주어 원만히 조정하였음
- (5)청주와 서울은 변동사항이 없음

5. 결론

이상의 위토 실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회 소유의 위토에 대해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위토수입의 손실이 있었습니

다. 우리 세대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 심문을 대표하는 중앙종회로서의 입지를 세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후손들은 더욱더 숭조돈독의 정신을 길이 이어갈 것입니다.

일부 지역종회와 증유사의 과거 오류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중회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각 지역 증유사의 위토관리 열정이 병행되어야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선조님께서 물려주신 총유물(總遺物)은 대대손손 지켜져야 하며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2014년 1월
총무이사 수영, 종재실사팀장 광섭

2013년 제44회 임시총회(2013. 6. 20)정관개정사항 中 위토실사 관련 조항

구 분	신 설
제9장 중중재산의 관리 제29조 중중재산의 정의와 실지조사 확인	<p>〈신설〉 第29條(宗中財産의 定義와 實地調査 確認) 1. 宗中財産이란 제3조 2항에서 규정한 五處山所의 位土目録에 登載된 財産으로서 垞地 田, 畓, 林野와 建物 等を 말한다. 2. 제1항의 宗中財産은 每年 實查計劃을 樹立하여 登記簿 상의 名義의 積부 公簿상 地目과의 일치 여부 無斷使用 여부 賃貸料의 積부 등을 現地調査에 의하여 實施하고 그 結果 問題點에 대한 對策을 講究한다. 3. 宗中財産의 實查報告는 반드시 定期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報告內容에는 問題點과 措置한 結果를 포함한다. 4. 宗財管理에 따른 細部事項은 內部規程으로 정한다.</p>

5처묘소 2단소(壇所) 증유사

대중회 위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 상 철

청송



심 원 섭

청송



심 정 수

함열



심 철 유

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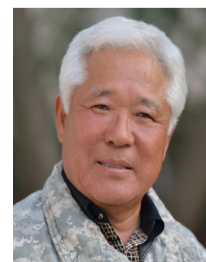
심 홍 섭

연천



심 재 룡

청주



심 상 국

철원 봉익공



심 상 학

덕천 악은공



순 리 (順 理)



심 동 섭 대종회 이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졸업
 경상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졸업
 성균관 전학(典學), 전의(典儀)
 진주대학교 사무국장
 진주시 충효교육원 사무국장
 성균관 유교신문 경남주재기자

대종회이사, 종보편집위원인 동섭(東燮)종친께서 이번에 다섯 번째 저서로 「늘푸른 솔밭길을 걸으며」를 출간하였다. 동섭 이사께서는 종보편집위원으로서 많은 조연과 기고를 해준은 물론, 중회탐방 등에도 가끔 동행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문화코너에는 「늘푸른 솔밭길을 걸으며」 저서中에서 수필 한편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그토록 매섭던 겨울의 한파도 한풀 꺾이고 소한 대한도 지났다.

쉬임없이 흐르는 세월 따라 천지가 순환하고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 때 민주화 운동을 하며 정권을 쟁취했던 대통령의 말씀 중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란 말도 정해진 순리를 거역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사랑도 목숨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고 세월 따라 가고 있는 것이다.

천하를 호령하며 권력과 명예를 누리던 자도 역겹을 이어온 우주의 순환에 비하면 찰나일 뿐이며, 수많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도 하루 열끼를 먹을 수 없으며, 밤에 누울 자리는 반 평

정도면 족한 것이다.

삼천궁녀를 거느리며 호화롭던 왕도 떠났고,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동방으로 삼천 명을 파견했던 진시황도 결국은 떠나고 말았다. 천지만물과 우리 인간 누구도 이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리한 욕망의 노예를 떠나 사람답게 순리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명예와 부(富) 귀(貴)를 위해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쓰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항상 베풀며,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근심하며 자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남의 칭찬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다. 언젠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상대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꽃다발의 뒤를 받치는 안개꽃으로 족하다는 겸손을 보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가슴 훈훈한 적이 있었다. 꽃다발에 안개꽃이 없이 꽃 한 송이만 달랑 있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재벌도 있고 노동자도 있으며 출세를 한 자도 있고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있으며 많이 배운 학자나 한글도 모르는 세대들도 모두들 조화를 이루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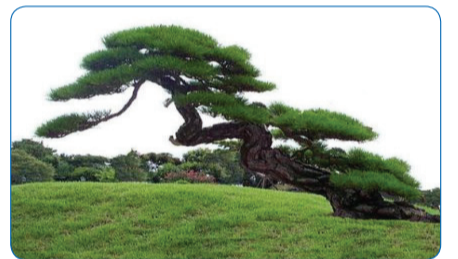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잘나고 모두가 출세하고 지도자가 된다면 나머지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 모두 개개인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삶인 것이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모두가 동등하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면 보다 건전한 사회,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제 새봄이 닿았다. 머지않아 매화꽃이 피고 개나리 진달래도 피어날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찬란한 새봄에 우리 모두 새 희망과 꿈을 안고 새 출발하자. 그리하여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자.



沈영감 심민섭



삶의유머

경상도 학교 수업시간

학생(안득기)가 수업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들켜서 불러나갔다.

선생 : 니 이름이 뭐꼬?

학생 : 안득깁니다.

선생 : 안드끼냐? 니 이름이 뭐냐꼬? 드끼제?

학생 : 예!

선생 : 이짜숙 바라! 내...니 이름이 머냐꼬 안무러 봤나?

학생 : 안득깁니다.

선생 : 정말 안드끼냐?

학생 : 예!

선생 : 그래! 드끼제? 그라모 성하고 이름하고 다 내 보그라.

학생 : 안득깁니다.

선생 : 이자숙 바라. 드킨다 컷다, 안 드킨다 컷다. 니 시방 나한테 장난치냐?

학생 : 셴요, 그기 아인데예!

선생 : 아이기는 머가 아이라카노! 반장아, 니 퍼떡 몽디 가온나!

(꿈을 몰래 씹고 있던 반장은 안 씹은 척 입을 다물고 나간다.)

반장 : 셴예. 몽디 가꼬 왔는데예~~~~

선생 : 이 머꼬? 몽디 가오라카이 쇠파이프를 가왔나? 하~요새키 바라, 반장이라는 새키가 칭구를 죽일라꼬 작정했꾸마... 야! 니 이반에 머꼬?

반장 : 예~~? 입안에... 껌인데예~

선생 : 머라꼬? 니가 이반에 껌이라꼬? 날씨도 더워서 미치겠는데 뭐~ 이런 놈들이 다잇노... 시방 너그 둘이서 널로 가꼬노나?

그날~~~반장과 득기는 뉘지게 맞았다.

-대종회 관리부장-

좋은 글

축의금 만 삼천 원

자신의 결혼식에 절실한 친구가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등에 업은 친구의 아내가 대신 참석하여 눈물을 글썽이면서... 축의금 일만 삼천 원과 편지 한통을 건네주었다. 친구가 보내준 편지에는...

“친구야! 내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가 사과장사가 이 좋은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 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기가 오늘 밤 분유를 끓여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만 삼천 원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개 밤그릇에 떠있는 별이 돈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울먹이던 네 얼굴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 보

낸다. 지난 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 보냈다.

신혼여행가서 먹어라 친구야! 이 좋은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 해다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친구가”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사과 하나를 꺼냈다.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친구의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라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가 가슴 아파할까봐 나는 어금니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참아도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소리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버렸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 서서...

이철환 작가의 「행복한 고물상」中 퍼온 글
 자료제공 : 종보편집위원회 회장 상은

종/인/소/개



심재면
대종회 감사

2014년 새해 1월 대종회 원로이시며 16년째 감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재면(載冕) 감사님을 찾아뵈었다.

현재 대종회의 현안 중 하나인 안성종회 일부 종인의 대종회 위토 보상금 수령을 포함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간 종보를 통해 1차로 춘식(春植) 감사께서 “정관대로 보상금을 입금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차로 상렬(相烈) 감사께서도 “조건 없이 즉시 보상금을 대종회로 입금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대종회 원로이신 재면 감사님께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안성종회 경주(庚周) 종인 등의 처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었다. 감사님께서서는 한마디로 “정관에 따라 대종회에 즉시 입금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신다.

“선조님께서 물려주신 총유물(總遺物)로 1916년 이미 경향(京鄕) 종유사 7명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한 중앙종회의 재산인 것이 확실한데,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아울러 “대종회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야지 원칙 없이 그때그때 사안별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향후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좋은 조언의 말씀에 집행부는 큰 위로를 받았다.

다음은 재면 감사님의 경력에 대해 여쭙었다. 재면 감사님께서서는 젊은 시절부터 청송심씨라는 자부심과 일가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셨다.

신문을 보고 1956년 서울 봉래초등학교에서 개최된 당시 대종회인 돈목회 행사 참석을 시초로 총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발전적인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과정에서 그 당시 돈목회 회장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종사에 참여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장교 시절 부대에 신병이 배치되어 오면 심씨를 찾아내서 청송심씨의 자긍심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배려하셨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 주셨다.

육군대위로 예편 후 오늘날 한화그룹의 모태인 한국

화약에 입사하여 예비군중대장과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며, 전국 예비군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여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셨다.

이를 계기로 한국화약 김종희 사장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경인에너지 창설 멤버로 활약하여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종로예식장 사장으로서 발탁되어 창의적인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최고의 시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 예식장으로 더욱 성장시키셨다.

그 후 서울지구 세무서 근무에 이어 재향군인회 창설, 공화당 창당에 참여하셨으며, 또한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자문위원 등 새마을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도시새마을운동 지도자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사단법인 6.25참전유공자회 동인천동구지회장 겸 종장교 37기동기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특히 제11대 천안지역 국회의원으로 공천 직전에 박정희대통령의 서거로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재면 감사님의 좌우명은 “주인의식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하면 인정받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데에 “후회는 없다”고 하신다. 그 만큼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음으로는 현 집행부에 대해 평가와 조언을 듣기로 하였다. 일부에서는 “대종회에서 무리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독단적이다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감사님께서서는 “현재 집행부가 개혁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소신껏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신다.

특히 “종재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하신다. 대종회 집행부는 감사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드렸다.

끝으로 재면 감사님께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일은 무엇이었던지를 여쭙었다. “1950년 6월 25일 북괴 김일성이 소련과 중공을 업고 불법 남침하

여 3일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조국이 백척간두,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을 때 군인으로 헌신한 내 작은 희생과 봉사가 조국 수호와 번영에 일조가 되었다는 국가유공자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다.

이번에 재면 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한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게 된다는 평범한 삶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끝맺음

재면 감사님의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모습을 지면(紙面) 제약(制約)과 졸필로 충분히 소개 못 드린 것이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재면 감사님! 대종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큰 일을 해주시고, 항상 건강 하시옵소서...

2014년 1월 14일

종보편집인 재서 문화이사
종보편집위원 상렬 감사

-재면 감사님 어록 발췌-

(사)6.25참전유공자회 인천동구지회 회장이셨을 때의 기념사 중에서...

“역사를 잇는 국민은 환란을 겪는다. 6.25 전쟁의 참혹한 비극을 경험한지 겨우 반세기밖에 안되었는데, 일부의 국민과 젊은 세대들은 너무 안일하고 위험스런 통일의 환상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더욱이 6.25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의 안보 불감증이 팽배되어 있고, 6.25의 참화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서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은 큰 걱정이다.”

갑종장교37기 동기회 명예회장
(사단법인) 6.25 참전유공자회 前인천동구지회장 심재면

■ 차기종인소개

- ▷ 대종회 갑보부회장(대종회 창립멤버) - 3월호(제106호)
- ▷ 안동종회장 재덕 - 5월호(제107호)

모범종회

(四世조) 악은공종회(岳隱公宗會)

악은공 종회는 관향(貫鄕)에서 600여 년 동안 시조(始祖)선산(先山)을 수호관리(守護管理)하고 있는 종회로 우리 심문(沈門)모두의 존경(尊敬)과 찬사(讚辭)를 받고 있다.

묘하종인과 역대 종유사께서는 40만평이나 되는 종산(宗山)을 철저히 관리하여 일체 도장(盜葬)을 막고 위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선조님께서 물려주신 총유물(總遺物) 수호관리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모범종회이다.

선조님께서 물려주신 종산(宗山) 등 고귀한 재산을 사유화(私有化)하려는 일부 지역종회의 한 종인에 의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종회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악은공종회의 자랑스런 승조돈목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

청송 관향의 일가분들께서는 향파(鄕派) 후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시조님을 모시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



선조 유훈(遺訓)받들며 600여년 본향 지켜오는 영섭(榮燮) 악은공 종손

로 심문(沈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만사형통되고 청송을 대표하는 문중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또한 청송찬경회관에서는 수시로 묘하 일가들이 모여 발전적인 종사를 논의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시조묘소를 참배하는 일가분들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칭찬이 자자하다.

특히 악은공의 20세(世孫)로 600여 년 동안 우리 본향에서 종통(宗統)을 이어오고 있는 영섭(榮燮, 78세)종손은 본향 종인들의 정신적 지주(地主)이자 가문(家門)의 구심체이다.

유년(幼年)시절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우고 익히고 몸배어온 600여년 종통(宗統) 예법(禮法)에 따라 조상들께 행어나 누가 될까... 때로는 가문(家門)에 폐가 될까... 숙명처럼 살아온 고난의 길!

남들은 종손(宗孫)의 권위가 있어 자랑스럽게 여겨질지 몰라도 어딜가나 몸가짐 언행(言行) 하나 조심하고 외로워도 말 못하고 괴로워도 참아내며 걸어온 한 길이다.

영섭(榮燮) 종손(宗孫)은 오늘도 외롭고 힘든 길을 마다 않고 600여년 선조님들의 빛나는 충(忠), 효(孝), 인(仁)의 덕망을 베푸는 청송 심문(沈門)의 본향(本鄕) 지킴이로 이 시대의 마지막 종손(宗孫)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심민섭 화백의 신년특집 만화 기고



심갑보 부회장 『내 삶의 발자취』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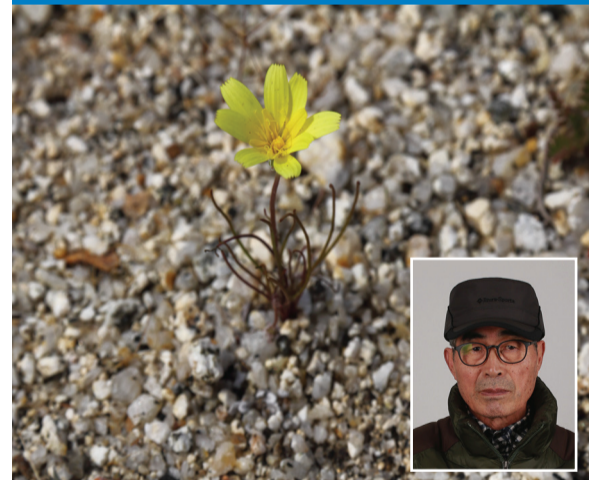
대종회 갑보 부회장께서 78년간의 훈장, 위촉장, 표창장, 공로패 및 각종 상·학위기, 임명장 등을 수록한 모음집(2013. 11. 15)

심재덕 안동종회장 개인전 개최



재덕종회장 신춘서화 달력 초대 개인전에 대종회 집행부 관람 (2014. 1. 15 ~ 1. 21 인사동 한국미술관)

심상현 사막야생화 사진전 개최



(2013. 12. 5 ~ 19) 제주웰컴센터

50만원 이상 증보·장학금 찬조 종인(2회) 사진개재

수운관공파마산종회 (회장 규실)	인천종회 (회장 응우)	도총제공파 (회장 민섭)	청심회 (회장 재안)	창순공종회 (회장 주택)	안동종회 (회장 재덕)	심인섭 (대종회 이사강원)	공숙공종중 (회장 응섭)	부사공종중 (회장 영섭)	청송관장 재홍	사어공종회 (회장 응섭)
증보/장학찬조 80만원 2014.1월	증보/장학찬조 60만원 2014.1월	증보/장학찬조 150만원 2013.12월	증보찬조 100만원 2013.12월	증보찬조 50만원 2013.12월	증보찬조 50만원 2013.12월	장학찬조 50만원 2013.11월	증보/장학찬조 200만원 2013.11월	증보/장학찬조 400만원 2013.1~11월	증보찬조 100만원 2013.11월	증보/장학찬조 50만원 2013.11월



12世祖(諱:協) 水運判官公派 馬山 宗會



沈揆實
마산종회 회장

- **일시** : 2014년 1월 17일(금) 17:00
- **장소** : 마산 자산동 소재 학서정 재실
- **참석자** : 총9명
 - 고 문: 점보(點輔), 순보(淳輔)
 - 회 장: 규실(揆實)
 - 부회장: 성규(成圭)
 - 위 원: 기보(琪輔), 호조(好祚), 태규(泰揆)
 - 총 무: 규동(揆東)
 - 재 무: 광수(光洙)
- **탐방자** : 재서 문화이사 / 종보편집인
수영 총무이사
동섭 종보편집위원 / 대종회이사
판사공파목공종회장

1. 수운판관공 종회 구성

1) 연혁

공(公)은 청송심씨(靑松沈氏) 십이세(十二世)로 휘(諱)는 협(協)인데, 그 선조(先祖)는 명종대왕의 국구(國舅)이신 익효공(翼孝公) 휘 강(諱 剛)이 공(公)의 조부(祖父)이시고, 수운판관공(水運判官公) 휘 계겸(諱 悌謙)은 고(考)이시다. 공(公)의 형제(兄弟) 세 분은 호성원종(扈聖原從) 공신(功臣)으로, 진사(進士) 유(愉)는 백형(伯兄)이요, 김포군수(金浦郡守) 관(貫)은 실제(實弟)이시다.

공은 학문을 좋아하고 어진 성품(性稟)으로 문행(文行)과 인덕(仁德)을 두루 갖춘 선비로 명예(名譽)와 벼슬보다는 수양(修養)과 수신(修身)에 뜻을 두어 산천(山川)을 유람(遊覽)하시다가 그 종적(蹤迹)을 감추시었다.

공(公)의 자(子) 휘 정강(諱 廷江)은 임진왜란을 만나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殉節)하였는데, 그의 아들 휘 식(諱 植)께서 유해(遺骸)를 수습(收拾)하러 왔다가 이곳 마산에 정착(定着)을 하시니 수운판관공파(水運判官公派) 마산종중(濫觴)이 되신다. 휘 식(諱 植)의 자(子)는 수학(壽鶴), 수열(壽烈)이시다. 이러한 명문(名門)의 후예(後裔)인 공(公)의 행적(行績)과 배위(配位)이신 양천허씨(陽川許氏) 묘소(墓所)가 오랜 세월로 인하여 실전(失傳)되었음을 늘 아쉬워하던 차에 근년(近年)에 후손들이 뜻을 모아 마산(馬山) 자산동(慈山洞) 선영(先塋)하(下)에 공(公)을 기리는 단비(壇婢)를 세우고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2) 종원과 조직

가) 종원

馬山 小宗中 子孫들은 현재 馬山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世居하고 있으며 宗員간의 親睦과 宗회발전을 위하여 活動 하고 있다.

나) 종중 執行部의 構成 (총18인 무순)

- ▶ 고 문: 심주보(住輔), 소보(小輔), 점보(點輔), 순보(淳輔)
- ▶ 회 장: 심규실(揆實)
- ▶ 부회장: 심영락(永洛) 심성규(成圭)
- ▶ 감 사: 심규곤(揆坤) 심월보(月輔)
- ▶ 위 원: 심기보(琪輔) 실(實) 호조(好祚) 규관(揆寬) 태규(泰揆) 영민(榮珉) 창열(昌烈) (7인)
- ▶ 총 무: 심규동(揆東)
- ▶ 재 무: 심광수(光洙)

다) 회의(會議)기구 및 운영(運營)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종중의 대소사 및 종중관련 사항을 결의하여 시행, 집행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5월 3째 주에 개최하고 종회원 단합 및 임원선출, 정관개정 등 종중 주요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으로 종중운영, 회원복지(학자금, 경로금, 경조사) 묘제 별초 등 기타사업에 중당하고 있다.

4) 종원들에게 바람(규실 회장)

- 1) 종원들의 만남을 통하여 친목과 대화도 나누고 대소사에도 서로 도와 가면서 일가간의 우애를 나누자.
- 2) 종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고, 집행부와 자주만나 소통을 위한 대화를 나누자.

5) 대종회에 건의사항

- 1) 지방종회에서 선대 묘소(5처묘소 2제단) 순례 시 대종회에서는 종유사 등으로 하여금 안내와 해설을 해 주었으면 한다.
- 2) 대종회 총회 시에 개인의 주장을 내세워 소란케 하며 질서를 파괴하는 종인들에 대해서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전국의 일가들이 모이는 총회는 축제 분위기에서 화합하고 조용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 3) 대종회는 대규모 종회위주의 운영보다도 현재와 같이 전국 종회를 아우르는 공평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종보 발행과 편집은 현재 공정하게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 4) 현재 장학 사업은 성공적이라 보며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그 규모를 더 확대했으면 한다.

탐방후기

청송 종재실사를 끝내고, 다음날 산청 목곡종회를 방문 후, 대종회 이사이며 종보 편집위원인 東燮 理事의 안내로 水運判官公派 馬山宗中을 탐방하였다. 오후 5시에 도착하니 많은 일가 어른들께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상호 인사를 나누는 후, 함께 선산에 올라 선조님께 참배를 하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규실 회장님께서 마산종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규모는 작지만 종원들 간의 화합과 종재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날 무렵 정성어린 종보 및 장학 찬조로 우리들을 격려해 주었으며, 앞으로 대종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水運判官公派 馬山宗會員들의 말씀에 우리는 더 한층 고무되었고,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재 다짐을 하며 보람 있는 종회탐방의 시간이 되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점보(點輔) 순보(淳輔)고문님과 규실회장님 규동총무님과 여러 일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 차기 종회탐방 예정일정

- 3월호(종보106호) - 판사공파목공종회(회장:동섭)
- 5월호(종보107호) - 칠방공파종회(회장:규일)



수운판관공 재실앞에서 임원진과 탐방원 기념촬영



수운판관공 선조단소 참배 후 기념촬영

3) 송조돈족(崇祖敦族) 사업

- 1) 매년 순차적으로 시조묘소를 위시하여 선조들의 묘소 순방으로 송조 사상을 높이고 있다.
- 2) 대종회와의 상호 방문연락으로 종회 발전과 대종회의 지침에 적극 동참하고 긴밀히 협조 소통하고 있다.
- 3) 종회 운영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시내중심가에

관향(貫鄉) 소식

청송청년회 송년모임 개최

청송 청년회는 지난 12월 6일 저녁6시 청송읍내 까치식당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를 마감하는 조촐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청송출신 심상박 종인 군위군 부군수 취임



경북도청에 근무하는 심상박 서기관이 지난 1월 3일 경북 군위 부군수로 취임했다. 심상박 종인은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출신의 출향 종인(出鄉 宗人)이다.

▶ 자료제공 : 남규 편집위원(대중회이사)

인선중회
임원개선

판사공파
임원개선

법국중회
임원개선

회장 : 응무
감사 : 옥환, 상국
총무 : 순식, 경수
재무 : 강수, 대한

회장 : 상우

회장 : 재인

축하합니다



• 심명필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대한토목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돼 취임했다. 임기는 1년.



• 대중회이사 심용규의 차남 국현 기아자동차 슬로바카야지점 공장장으로 발령 됐다.



• 경북 심덕보 포항북부경찰서장으로 영전

제이웨딩

대표 **심유섭**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207-2 / T. 02-432-9000

공 지 사 항

- 2014년도 종보찬조(1만원) 지로용지는 5월호 9월호에 삽입하여 연 2 회 송부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종보에 종회탐방, 종인소개, 모범종회소개, 일가들의 단합모임, 유머, 교육, 문화 등 고정코너가 있습니다. 전국 종인 여러분께서 추천,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중회에서 판매하는 책자 안내
 - ▶ 대동세보(경진보) 1질 (12권) 수권1권, 자손록10권, 색인부1권
보급가 : 10만원
 - ▶ 대동세보수권속편 외4종
대동세보수권1권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1권
종보축쇄판 1,2권
(휴대용)제향홀기, (휴대용)종사수첩, 배지
보급가 : 5만원

▶ 날개(1개)보급가

내역	보급가
종보축쇄판(2) 51~100호	15,000 원
종사수첩	3,000원(10개 단위보급)
배지	5,000 원 (20개 단위로 보급)
수권속편	30,000 원

※ 택배비포함

- 2014년도 장학금지급은 회장단회의가 끝나는 3월 20일경에 지급예정입니다. 수도권은 해당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며 지방은 추천종회로 송금합니다
- 수도권 장학생 접수는 2014년 1월 31일자 마감되었습니다.
- 종보수령 주소지 변경시는 대중회로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각종 회비, 찬조금중 내역에 이상이 있으시는 재무담당자에게 필히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종보발행은 격월 흡수월에 발행합니다 (연6회)

대중회 인사발령(2013. 12. 1부)

대중회 위촉 자문 변호사 선임



심 갑 보 변호사

출신교 : 마산고, 한양대 법과대학 졸업
주요경력 : 사법시험 제28회, 사법연수원 제18기, 창원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지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전화 031-216-1300)

2단소 증유사 위촉



심 상 국 (증유사)
2세조 봉익공단소



심 상 학 (증유사)
4세조 악은공단소

일가들의 단합모임

- 대구.청.장년회 -

1988년 창립된 대구 청.장년회는 모범종회로 대구 종회 홍섭 회장님과 긴밀한 유대관계로 종사발전과 종인들의 화목에 앞장서서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다.

1월10일 임원개선을 한 후 일가들 간에 화합을 다지는 다과회를 갖고 일가 간에 덕담을 나누었다.

◎ 청.장년회 임원

회장 : 훈택 부회장 : 광열, 상적

총무 : 유탉 재무 : 문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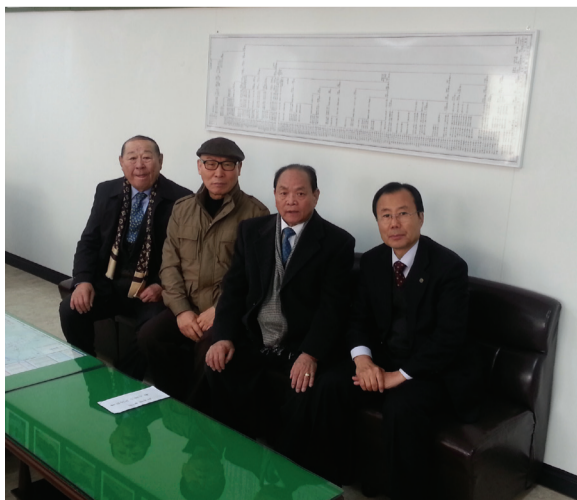


대구 청.장년회의 신년 단합대회 모습

정성어린 종보찬조금 전달

이천중회 대중회 방문 찬조금 전달

대중회 용준 지도위원님과 이천중회 재봉 회장님께서 대중회를 방문하셔서 정성어린 찬조금을 전달해주셨다.



이천중회에서 찬조금 전달 후 기념사진 (왼쪽부터 용준지도위원, 상화회장대행, 재봉회장, 재서재무/문화이사)

이천중회 신년회 모임

대중회 용준지도위원께서 이천중회 활성화를 위한 신년모임을 갖고 향후 계획 및 대중회와 긴밀한 유대강화를 다짐하였다.



재봉회장.용준부회장, 임원진 신년모임 후 기념촬영

| 송 | 금 | 안 | 내 |

任員會費·宗報贊助·獎學贊助·族譜代金 등 입금구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